

성기능 치료제, QOL 넘어 QOS 시대

CJ, 여성용 성장에 치료제 Femprox 판매계약 ... 한미 · Eli Lilly도 가세

최근 성기능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이 쏟아지고 있다.

과거 수치감으로 숨기기에 급급했던 남성 발기부전, 여성 불감증 등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관련 의약품 시장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제약업체에 따르면, 국내에서 한동안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뜻의 QOL(Quality Of Life) 의약품이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이른바 QOS(Quality Of Sex) 의약품으로 통칭되는 성기능 장애 치료제들이 잇따라 소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.

QOS 의약품의 선두주자는 역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<비아그라>가 독점했던 시장에 2003년 들어 Eli Lilly <시알리스>와 GlaxoSmithKline(GSK)의 <레비트라>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.

36시간 효과지속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시알리스는 2003년 9월 국내시판과 동시에 도매상과 약국 등으로부터 주문이 폭주했고, 레비트라도 복용 후 1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다.

2004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바르는 남성 호르몬제도 벌써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.

한미약품이 2004년 3월부터 판매하는 <테스토겔>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겔 형태로 만든 제품인데, 하루에 한번 팔과 복부 등에 발라주기만 하면 성기능 향상과 기분전환의 효과를 볼 수 있다.

더욱이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의학 전문지에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의 성욕을 촉진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.

이밖에 여성의 성생활을 개선하는 제품도 1-2년 안에 국내에 들어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.

CJ는 미국의 바이오기업인 넥스메드가 개발중인 여성불감증 치료제 <펨프록스(Femprox)>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고 QOS 의약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태세를 갖추었다. 펨프록스는 2005년께 국내에 발매될 예정이다.

펨프록스는 미국 NexMed가 특허를 보유한 Nexact라는 약물전달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투여 후 5-10분이면 효과를 발휘하고, 이상반응도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앞서 CJ는 2003년 3월 NexMed의 국소용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<비파(Befar)>의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해 현재 시판을 앞두고 있다.

제약업체 관계자에 따르면, 현재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기능 장애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앞으로도 엄청난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2/11>